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앙이나 살상 전쟁이나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집총 군대 복무를 거부하는것

연간 600명이 넘는 수준

100명중99명은 특정 종교인

대법원은 단 한명의 예외없이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왔고 징역 1년6개월 저분

병역법 88조 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헌재 2004년 2011년 합헌

광주지법 5 단독 재판부의 판결문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할수 있다는게 근거 그리고 대법원은 확고하다

나의 주장 논거

논거 1 우리나라의 안보의 특수성

* 남북, 적대적 대치상태에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천안함, 연평도 사건등 직접 충돌 있었다는 점 고려해야합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이다.
*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종교적 신념일 뿐이다.

논거2 징병제와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군 병력손실)

* 현역병들조차 언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될지 모르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점차 확대 되어가고 있다.
*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논거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혜택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 그들은 자신의 가정과 재산은 보호받기 바라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다.
* 그들이 누리는 혜택(일상적인 삶)을 다른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이루고 있다
* 당연한 생활을 누리게끔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무로 군 복무를 수행합니다. 그 군복무를 수행하지 않는자들은 자신의 가정만 중요하고 사회의 안정은 생각하지 못하는것이므로

논거4 국민감정에 미치는 영향

* 대체복무제에 대한 여론 (%) 조사기관 : 리얼미터 조사대상 : 19세 이상 남녀 525명 조사시기 : 2016년 10월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에서 +-4.3%p
* 매우반대+반대 53.6%
* 매우찬성+찬성 29.4%
* 잘모름 17%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인해서 군기피자와 군면제자와의 구분이 불명확해져서 국민감정의 대립이 심화된다.

내면에 있는 종교적 신념을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어렵다 대체복무가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인간 내면 심리,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심사)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윤리적 가치에 많이 의존한다는 함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다. 개인의 양심을 타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이 된다면 애매한 양심의 판단기준으로 인해서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즉, 양심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미비하다. 이런 개인의 도덕적인 가치를 수치화하거나 객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여야지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허용하게 된다면 매번 판결마다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병역거부한 사람의 양심의 정도를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으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살생을 하고싶거나 총을 쏴보고 싶어서 입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가기 싫지만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다수의 일반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자신만 특별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이기주의적인 태도입니다.

평등권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역거부를 신청한 사람의 양심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면 매번 병역거부 판단이 날 때마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형평성과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는 주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든 비 종교인이든 국방의 안위 앞에서는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은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전쟁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외침에 방어 능력은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라도 개인을 수호하는 집단을 파괴시켜서 개인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인권을 지켜주는 사람의 의식주와 같은 삶을 위한 최고한의 필요가 국방인데 그것을 외면하면 안된다.

외적이 침략해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자 할 때 이에 맞서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르며 윤리적이라는 가치관에 따른 행동입니다

전쟁에서 전투병을 보조하는 다른 보직들.간호,위생,보급,공병,행정.통신.등등..전부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기초군사 교육을 받을때는 "집총"을 해야 합니다. 사격훈련도 받아야 하구요. 전투병 이외의 보직으로서 군인 신분은 받아들이겠는데 "집총"은 거부하겠다~..음..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논리와 같아 보입니다

논거 5 개인의 양심과 법적 의무는 구분해야 한다.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많은 규칙과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드는데 큰 밑바탕이 되는 것이 헌법이고 헌법은 보편적이고 사회의 구성원이 받아들일수 있는 윤리적 가치에 최대한 맞추어 만들게 됩니다. 군입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가치를 주장합니다. 즉 윤리적 가치에 가까운 것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법으로 정해놓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성을 가진 법을 거부하기 위해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윤리적 가치를 내세운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를들어 일반인들도 군입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게 싫어도 군입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더 특별히 이런 살생을 하기 싫은 윤리적인 가치가 있다고 입대를 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양심의 자유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법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병역법은 헌법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잘못된 종교신념에서 비롯된것이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할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의무의 균형이 흐려질수 밖에 없는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한국교회언론회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양심적 세력으로 보아야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심적 집총 거부라는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바탕이 됐다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양심선언을 거짓말로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면 그들의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상대방 주장 예상

논거 1 해외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된다

논거 2 수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논거3 양심의 인정범위와 방법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수 있는가

* 역사적으로 국가 안보는 개인의 사상과 자유를 침해하는 근거 되며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도 15년 전부터 대체복무 도입
* 입영 대기자가 군대 필요 인원보다 더 많아
  +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순간 현역병들조차 그 범위에 포함되므로 군대 필요 인원은 더욱 늘어날것입니다.
  + 국방부 대리인 : 그저 일시적인 현상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양심은 인격적존재 자체가 걸려있으며 소수자를 나타낸다